

헤브론 교회 세례 교육

목 차

오리엔테이션	2
세례 교육 전 제출 과제	4
신앙 결단문	5
신앙 양육 결단문	7
1회 : 성경 & 하나님	9
2회 : 죄 & 그리스도	15
3회 : 성령 & 구원	23
4회 : 인간의 의무	29
5회 : 은혜의 수단 (말씀 & 성례)	33
6회 : 은혜의 수단 (기도).....	39
헤브론 교회 세례 서약	43

헤브론교회 세례/유아세례 교육 오리엔테이션

1. 교육 기간: 총 6회 (오리엔테이션, 마무리 교육 포함하면 8회)

2. 교육 방법

1) 과제 : 문답 손으로 필기 후 제출, 영상 시청

2) 교육 : 질의 응답 (대면 or Zoom)

3. 일정:

일정	교육 내용	다음 주일까지 과제
영상 없음	오리엔테이션	문답 1-13번 손으로 써서 제출
1	성경 & 하나님	문답 14-28번 손으로 써서 제출
2	죄 & 그리스도	문답 29-36번 손으로 써서 제출
3	성령 & 구원	문답 39-87번 손으로 써서 제출
4	인간의 의무	문답 88-97번 손으로 써서 제출
5	은혜의 수단 (말씀&성례)	문답 98-107번 손으로 써서 제출
6	은혜의 수단 (기도) & 헤브론교회 세례 문답	신앙 결단문/자녀양육 결단문 제출 (문답 3일 전까지)
영상 없음	마무리 교육	세례문답서 핵심 내용 점검.
	세례문답	목사님들, 당회 앞에서 세례 문답.

4. 패스 조건

- a. 첫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4page에 있는 ‘세례 교육 전 제출 과제’를 제출해 주세요.
- b. 세례받는 것을 확정하고 교육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받는 기간 동안 “내가(or 자녀가) 세례를 받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묻고 답하는 교육입니다. 세례 교육을 마친 후에, 나는 세례를 받지 말아야겠다고, 혹은 자녀에게 세례를 주지 말아야겠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 c. 세례를 받는 것이 맞다는 확신이 든다면, 열심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과제를 완수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d. 과제 미제출시 패스할 수 없습니다.
- e. 7회 교육까지 마친 후에는 늦어도 세례문답 3일 전까지 성인세례자는 신앙 결단문을, 유아세례 부모는 신앙양육 결단문을 제출해주세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신하게 되고, 헤브론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는 것을 앞둔 자신의 소감과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양육 결단문은 자녀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솔직하게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f. 세례식이 있는 날에는 예배 시작 15분 전까지 본당에 도착해주세요.
- g. 세례식 후에 세례증서를 교회사무실에서 수령해주세요.

5. 참고

- 교육 내용 도움말 중 (삶)은 정요석, ‘소요리 문답, 삶을 읽다’ (특)은 황희상, ‘특강 소요리 문답’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세례 교육 전 제출 과제>

이름: _____

1. 복음이란 무엇인가? 자신이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기록해주세요.
2.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를 적어주세요.
3. 세례는 무엇입니까?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유아세례의 경우, 왜 유아세례를 주려고 하는지 적어주세요.

세례 신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신앙 결단문

(1 페이지 이상)

이름: _____

[illegible]

유아 세레자의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신앙 양육 결단문

(1 페이지 이상)

이름: _____

[illegible]

[1회: 성경 & 하나님]

1.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Q. 1.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A.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2.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셔서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지시하셨나요?

=> 하나님의 말씀, 곧 구약과 신약 성경에 담겨있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Q. 2. What rule hath God given to direct us how we may glorify and enjoy him?

A. The Word of God, which is contained in the Scriptur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is the only rule to direct us how we may glorify and enjoy him.

3.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요?

=>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 입니다.

Q. 3. What do the Scriptures principally teach?

A. The Scriptures principally teach what man is to believe concerning God, and what duty God requires of man.

4.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선함), 진실하심이 무한, 영원, 불변하는 영이십니다.

Q. 4. What is God?

A. God is a spirit, infinite, eternal, and unchangeable, in his being, wisdom, power, holiness, justice, goodness and truth.

1.

*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나에게서 어떤 힘, 권세, 능력, 아름다움이 드러나든지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힘, 권세, 능력, 아름다움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모든 칭찬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삶) 하나님은 만물의 기원이자 유지자인 동시에 목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이 사실을 알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특강)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을 한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랑을 하면 즐거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즐거워하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3.

특강) 소요리문답 1문에서 38문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39문부터 107문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내가 따를 대상, 내가 사랑할 대상을 알아야 하고,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알아야 그분의 성품에 감동할 수 있고, 그분이 하신 일에 감사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따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순종이며, 참으로 자유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내가 무엇을 따를까요?' 라고 기꺼이 묻게 되며,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4.

삶) 거룩은 히브리어로 '코데쉬'인데, 코데쉬는 원래 '절단하다,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어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무한한 위엄 속에 높이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도덕적 악과 죄로부터 분리되신 분이므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도 부정과 악과 죄로부터 분리될 것을 명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심에 부합하게 행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어긋나게 행한 자들에게는 형벌을 부과하십니다.

5. 하나님 한 분 외에, 하나님이 더 계신가요?

=>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뿐입니다.

Q. 5. Are there more Gods than one?

A. There is but one only, the living and true God.

6.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요?

=>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같은 본질과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십니다.

Q. 6. How many persons are there in the godhead?

A. There are three persons in the Godhead;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Ghost; and these three are one God, the same in substance, equal in power and glory.

7.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요?

=>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의 계획(의논)에 따른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이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미리 정하셨습니다.

Q. 7. What are the decrees of God?

A. The decrees of God are his eternal purpose, according to the counsel of his will, whereby, for his own glory, he hath foreordained whatsoever comes to pass.

8.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나요?

=>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의 일로 그 작정을 이루십니다.

Q. 8. How doth God execute his decrees?

A. God executeth his decrees in the works of creation and providence.

9. 창조의 일이 무엇인가요?

=> 창조의 일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로부터 만드신 것인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6일동안 만드셨고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Q. 9. What is the work of creation?

A. The work of creation is God's making all things of nothing, by the word of his power, in the space of six days, and all very good

6.

*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16) 사랑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사랑을 하고 있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요17:24) 라는 구절에서 창조사역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교통하심”입니다(고후 13:13).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중재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교통을 통하여 창세 전에도, 또 창세 이후에도 계속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특강) 완전한 이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 언어의 한계와 시공간이 한계로 인하여 우리보다 더 크신 존재인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만큼은 “아, 그렇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7.

삶) 하나님이 걱정하실 때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말은 결코 이기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고 찬란하며 영예롭고 큰 것은 없습니다.

9.

공간		거주	
첫째 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1:4)	넷째 날	광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1:16)
둘째 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1:7)	다섯째 날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1:20)
셋째 날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1:10)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1:11)	여섯째 날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1:24)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1:27)

10.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주관할 통치권을 부여하셨습니다.

Q. 10. How did God create man?

A. God created man male and female, after his own image, in knowledge, righteousness and holiness, with dominion over the creatures.

11.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무엇인가요?

=>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있게 자신의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Q. 11. What are God's works of providence?

A. God's works of providence are his most holy, wise and powerful preserving and governing all his creatures, and all their actions.

12. 사람이 창조함을 받아 타고난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특수한 섭리를 행하셨습니까?

=>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더불어 생명의 언약(a covenant of life)을 세우시며, 선악과를 먹지 말도록 금하셨고, 먹으면 죽음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Q. 12. What special act of providence did God exercise toward man in the estate wherein he was created?

A. When God had created man, he entered into a covenant of life with him, upon condition of perfect obedience; forbidding him to eat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upon pain of death.

13. 우리의 처음 시조가 창조 때 타고난 신분을 계속 유지했습니까?

=> 우리들의 처음 시조는 자기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가졌으며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그들의 창조 때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했습니다.

Q. 13. Did our first parents continue in the estate wherein they were created?

A. Our first parents, being left to the freedom of their own will, fell from the estate wherein they were created, by sinning against God.

10.

삶) 골로새서 3:10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하고, 에베소서 4:24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지 사람의 눈코입과 같은 외모가 아닙니다.

12.

특강) 특별한 섭리란 우리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조건은 우리가 그분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며, 그 완전한 순종을 알아보기 위한 수단이 바로 선악과 먹는 것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순종이 핵심이고, 선악과 따 먹는 것은 그것을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그 약속에는 사망의 형벌이 걸려있습니다. 반대로 순종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2화: 죄 & 그리스도]

14문. 죄가 무엇입니까?

=>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그것을 범하는 것입니다.

Q. 14. What is sin?

A. Sin is any want of conformity unto, or transgression of, the law of God.

15문. 우리의 처음 시조가 창조함을 받았을 때의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한 원인이 되는 죄가 무엇입니까?

=> 우리의 처음 시조가 그들의 창조함을 받았을 때의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한 원인이 되는 죄는 그들이 그 금지된 열매를 먹은 일입니다.

Q. 15. What was the sin whereby our first parents fell from the estate wherein they were created?

A. The sin whereby our first parents fell from the estate wherein they were created was their eating the forbidden fruit.

16문.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처음 범죄 때 함께 타락했습니까?

=> 아담과 맺어진 언약은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로부터 정상적인 생육법에 의하여 내려온 모든 인류는 그가 처음 범죄할 때 그의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Q. 16. Did all mankind fall in Adam's first transgression?

A. The covenant being made with Adam, not only for himself, but for his posterity; all mankind, descending from him by ordinary generation, sinned in him, and fell with him, in his first transgression.

17문.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빠뜨렸습니까?

=>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Q. 17. Into what estate did the fall bring mankind?

A. The fall brought mankind into an estate of sin and misery.

14.

* 율법의 구체적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죄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위에 짓기 때문입니다.(팀켈러)

16.

삶) 아담은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그의 후손 전체를 대표하는 개인으로서 하나님과 행위언약을 맺었습니다. 만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주변의 어떤 나라와 전쟁을하기로 결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선전포고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 상황에서는 국민이나 군인 각자가 그 전쟁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더라도 전쟁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18문.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 들어간 그 상태의 죄성은 무엇입니까?

=> 사람이 타락해 들어간 상태의 죄악됨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 원의의 상실, 그의 전 속성의 부패에 있는데 보통 원죄라고 불리고,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의 범죄들에 있습니다.

Q. 18. Wherein consists the sinfulness of that estate whereinto man fell?

A. The sinfulness of that estate whereinto man fell consists in the guilt of Adam's first sin, the want of original righteousness, and the corruption of his whole nature, which is commonly called Original Sin; together with all actual transgressions which proceed from it.

19문.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 들어간 상태의 비참이란 무엇입니까?

=> 모든 인류는 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었으며,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따라서 인생을 온갖 비참 속에서 지내며, 죽게 되며, 그리고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Q. 19. What is the misery of that estate whereinto man fell?

A. All mankind by their fall lost communion with God, are under his wrath and curse, and so made liable to all the miseries in this life, to death itself, and to the pains of hell forever.

20문. 하나님이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 두셨습니까?

=> 하나님께서 오직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어떤 이들을 영생으로 택하셔서 은혜의 언약 (a covenant of grace) 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한 구속자에 의하여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 내어 구원의 상태로 이끌어 들이려는 것입니다.

Q. 20. Did God leave all mankind to perish in the estate of sin and misery?

A. God having, out of his mere good pleasure, from all eternity, elected some to everlasting life, did enter into a covenant of grace, to deliver them out of the estate of sin and misery, and to bring them into an estate of salvation by a redeemer.

19.

삶)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달려가 반가이 맞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을 피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으로서 육체적 죽음은 그에 따라 얼마 후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이는 포도나무에서 잘린 가지가 과실을 맺지 못하고 겨우 며칠 싱싱함을 유지하다 말라 죽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인류는 서로 간의 교제도 잃어버리고 서로에게서 소외되었습니다.

20.

* 구속자 - 노예를 몸값을 주고 사서 꺼내준 사람

* 생명의 언약(a covenant of life) VS. 은혜의 언약(a covenant of grace)

삶)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행위언약(생명의 언약)의 조건은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는 그렇게 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 자체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선물이었고 아담이 그 능력을 펼칠 때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낮아짐이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죄와 비참함에 빠진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러한 죄와 비참함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21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의 구속자가 누구입니까?

=>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로서, 사람이 되어, 그렇게 계셨고, 그때부터 앞으로도 계속, 두 구별되는 본성과, 한 위격으로, 영원히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십니다.

Q. 21. Who is the redeemer of God's elect?

A. The only redeemer of God's elect is the Lord Jesus Christ, who, being the eternal Son of God, became man, and so was, and continueth to be, God and man in two distinct natures, and one person, forever.

22 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참 육신과 영혼을 취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그에게서 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Q. 22. How did Christ, being the Son of God, become man?

A. Christ, the Son of God, became man, by taking to himself a true body and a reasonable soul, being conceived by the power of the Holy Ghost in the womb of the virgin Mary, and born of her, yet without sin.

23문.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로서 하시는 직무가 무엇입니까?

=>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는 그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 있어서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Q. 23. What offices doth Christ execute as our redeemer?

A. Christ, as our redeemer, executeth the offices of a prophet, of a priest, and of a king, both in his estate of humiliation and exaltation.

24문. 그리스도가 예언자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 그리스도가 예언자의 직무를 수행하심은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함으로써 하십니다.

Q. 24. How doth Christ execute the office of a prophet?

A. Christ executeth the office of a prophet, in revealing to us, by his word and Spirit, the will of God for our salvation.

21.

* 딤전 2: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삶)

* 인성 - 타락으로 인해 죄와 비참함에 빠져 구원받아야 하는 대상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자이신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어 사람들이 타락으로 겪는 죄와 비참함을 경험하고 사람으로서 죄의 형벌을 감당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신성 - 타락으로 인해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형벌과 비참함과 연약함의 고통과 짐은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큼니다. 또 죄의 삯은 사망이므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속자는 다른 모든 이의 죄를 감당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뚫고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또 구속자는 살아 있는 동안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죽음의 권세에 영향받지 않아야 합니다.

시 49:7-8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23.

삶) 그리스도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 라는 뜻으로서 구약 시대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office)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수행하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라는 두가지 상태 (state)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24.

삶) 신약성경에서 선지자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프로페테스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전치사 ‘프로’는 시간상으로 앞(beforehand)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forth) 향하는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프로페테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밖으로 펼쳐내는 (forthtelling)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선지자의 직분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맡아서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25.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기 위하여 단번에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신 일과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재하심으로써 하십니다.

Q. 25. How doth Christ execute the office of a priest?

A. Christ executeth the office of a priest, in his once offering up of himself a sacrifice to satisfy divine justice, and reconcile us to God; and in making continual intercession for us.

26문. 그리스도가 왕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 그리스도가 왕의 직무를 수행하심은 그가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케 하는 일과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켜주시는 일과 그와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제재하고 정복하심으로써 하십니다.

Q. 26. How doth Christ execute the office of a king?

A. Christ executeth the office of a king, in subduing us to himself, in ruling and defending us, and in restraining and conquering all his and our enemies.

27문.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것은 그가 비천한 상태에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 있으며, 이 세상의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과 매장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Q. 27. Wherein did Christ's humiliation consist?

A. Christ's humiliation consisted in his being born, and that in a low condition, made under the law, undergoing the miseries of this life, the wrath of God, and the cursed death of the cross; in being buried, and continuing under the power of death for a time.

28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에 오르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Q. 28. Wherein consisteth Christ's exaltation?

A. Christ's exaltation consisteth in his rising again from the dead on the third day, in ascending up into heaven, in sitting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nd in coming to judge the world at the last day.

25.

* 히 7:24-25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특강)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다 괜찮을거야~” 우리는 이렇게 마치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죄를 빌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중재로 우리가 지금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으로 한순간조차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27.

삶)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성자 하나님이 공간과 시간의 유한한 곳으로 들어오셔서 유한한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 자체가 큰 낮아짐입니다. 그리스도가 취하신 인성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죄책과 죄의 오염에서 자유로웠지만, 여전히 육신이 갖는 연약함, 고난, 죽음 등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28.

삶) 승천하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사도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을 맡은 목사들에게 성령을 통해 설교의 영감을 주시고 각 신자의 마음을 조명하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속죄 사역에 근거해 중보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변호하시고 부족한 신자들의 기도와 섬김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간구하십니다. 또한 여전히 예수님은 왕으로서 지상의 교회를 직분자들을 통하여 통치하고 보호하십니다. 모든 원수를 발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십니다.

[3회: 성령 & 구원]

29문.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값 주고 사신 그 구속에 참여자가 됩니까?

=>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 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자가 되는 것은 그의 성령이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써입니다.

Q. 29. How are we made partakers of the redemption purchased by Christ?

A. We are made partakers of the redemption purchased by Christ, by the effectual application of it to us by his Holy Spirit.

30문.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값 주고 사신 구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값 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우리를 효과적으로 불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써 하십니다.

Q. 30. How doth the Spirit apply to us the redemption purchased by Christ?

A. The Spirit applieth to us the redemption purchased by Christ, by working faith in us, and thereby uniting us to Christ in our effectual calling.

31.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영의 사역인 바, 우리의 죄와 비참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시며, 우리의 뜻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복하시며 또한 그렇게 할 힘을 주십니다.

Q. 31. What is effectual calling?

A. Effectual calling is the work of God's Spirit, whereby, convincing us of our sin and misery, enlightening our minds in the knowledge of Christ, and renewing our wills, he doth persuade and enable us to embrace Jesus Christ, freely offered to us in the gospel.

32.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것들을 곁따르거나 또는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립니다.

Q. 32. What benefits do they that are effectually called partake of in this life?

A. They that are effectually called do in this life partake of justification, adoption and sanctification, and the several benefits which in this life do either accompany or flow from them.

29.

삶) 그리스도가 것처럼 많은 일을 하셨어도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고 믿기를 거부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객관적으로 획득하신 구원을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바로 이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30.

특강)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생기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이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합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이 용어가 좀 어색한데, 왕과 기사가 돌아다니던 중세 시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왕이 부르면 가야 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느냐, 아니면 행위로 받느냐? 라는 관점에서는 “은혜”가 답입니다. 하지만 구원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느냐, 아니면 경험과 이성으로 주어지느냐? 라는 도구의 관점에서는 “믿음”이 답입니다.

31.

삶) 택자들의 지정의는 이미 외적 부르심이 있을 때 성령에 의한 중생을 통하여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한 성향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설득이 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도 놀랄 정도로 또렷한 의식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도 나가겠다고 스스로 결정합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자기 결정의 결과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령이 먼저 그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은 그들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외적 부르심과 중생을 통하여 효과적 부르심의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32.

특강) 칭의, 양자됨, 성화... 예수 믿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받게 될 복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복’과 딱 맞아떨어지나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무엇이 좋아질까 기대했던 것들을 떠올려 봅시다. 몸 건강하고, 마음도 평안하고, 돈 문제도 좀 해결되고, 집안에 우환도 없어지고...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우리가 원했던 것들은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의 핵심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칭의, 양자 됨, 성화가 복의 핵심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뇨, 저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뭐 당장에 별로 좋은 것도 아니고요, 제가 받을 복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33.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동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가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우리를 받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Q. 33. What is justification?

A. Justification is an act of God's free grace, wherein he pardoneth all our sins, and accepteth us as righteous in his sight, only for the righteousness of Christ imputed to us, and received by faith alone.

34. 양자로 삼으심이란 무엇입니까?

=> 양자로 삼으심이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들의 수효 속에 받아 주시며, 그의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Q. 34. What is adoption?

A. Adoption is an act of God's free grace, whereby we are received into the number, and have a right to all the privileges of, the sons of God.

35.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으로서 우리의 영육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로워지며,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Q. 35. What is sanctification?

A. Sanctification is the work of God's free grace, whereby we are renewed in the whole man after the image of God, and are enabled more and more to die unto sin, and live unto righteousness.

36. 이 세상에 있어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것들을 곁따르거나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혜택들은 무엇입니까?

=> 이 세상에 있어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것들을 곁따르거나 그것들로부터 나오는 혜택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양심의 평온과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은혜의 증진과 또 은혜 안에서 끝까지 굳게 견디는 것입니다.

Q. 36. What are the benefits which in this life do accompany or flow from justification, adoption and sanctification?

A. The benefits which in this life do accompany or flow from justification, adoption and sanctification, are, assurance of God's love, peace of conscience, joy in the Holy Ghost, increase of grace, and perseverance therein to the end.

33.

특강)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깨끗합니다. 흉악한 죄수일지라도 죄값을 모두 치르면 법적으로 깨끗하듯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에 힘입어 법적으로 깨끗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이런 법정적 의를 이루어주는데 이는 최소한의 의를 말하는 칭의의 소극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히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이라면, 구원은 단지 죄를 짓기 전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능동적으로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런 삶을 사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죄를 짓기 전 아담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담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영화롭게 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속 3:4)

34.

특강) 칭의에서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호텔을 예약하면 그 방이 미리 준비되듯이, 그리고 아침에 조식을 먹으러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우리는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특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든지 할 수 있는 특권이라 했을 때의 이 특권은 결국 무엇일까요? 그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을 하고 싶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죄인 된 상태의 사람들은 자기 권한으로 죄가 가득한 행동을 하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모릅니다. 설령 알지라도 전혀 꺼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은 점차 죄악 된 행동을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35.

특강) 우리가 완전하게 성화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죄의 잔재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과 끊임없이 싸웁니다. 종국에 가서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지만, 어쨌든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싸워야 하고, 종종 넘어지기도 한답니다... 성화의 과정 저변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원리가 깔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자라게 하실 때 기계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십니다. 천국 가서 비로소 교제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소요리문답 1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복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지금 내가 성화의 과정으로 힘들게 죄와 싸우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행복입니다.

36.

삶) 어려서부터 부모가 자신에게 쏟아부은 사랑을 아는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 화평이 깃들고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성도가 완전히 타락하지 않고 구원의 과정을 끝까지 견디어낸다는 의미입니다.

37. 신자들은 죽음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들을 받습니까?

=> 신자들의 영혼은 그들의 죽음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그들의 무덤에서 쉬니다.

Q. 37. What benefits do believers receive from Christ at death?

A. The souls of believers are at their death made perfect in holiness, and do immediately pass into glory; and their bodies, being still united to Christ, do rest in their graves till the resurrection.

38. 신자들은 부활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들을 받습니까?

=> 부활 때에 신자들은 영광 속에서 살림을 받아 심판의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되고 죄가 없다고 선언되고, 그리고 완전히 복을 받아 하나님을 충만하게 영원히 즐거워합니다.

Q. 38. What benefits do believers receive from Christ at the resurrection?

A. At the resurrection, believers, being raised up in glory, shall be openly acknowledged and acquitted in the day of judgment, and made perfectly blessed in the full enjoying of God to all eternity.

[4회: 인간의 의무]

39.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당신이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Q. 39. What is the duty which God requireth of man?

A. The duty which God requireth of man is obedience to his revealed will.

40.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종의 규칙으로 처음에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종하도록 처음 나타내셨던 규칙은 도덕법이었습니다.

Q. 40. What did God at first reveal to man for the rule of his obedience?

A. The rule which God at first revealed to man for his obedience was the moral law.

41.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내포되어 있습니까?

=>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내포되어 있습니다.

Q. 41. Where is the moral law summarily comprehended?

A. The moral law is summarily comprehended in the ten commandments.

42. 십계명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 십계명의 요점은 우리의 마음, 목숨, 힘, 그리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Q. 42. What is the sum of the ten commandments?

A. The sum of the ten commandments is to love the Lord our God with all our heart, with all our soul, with all our strength, and with all our mind; and our neighbor as ourselves.

* 43-81문 (십계명) 생략

39.

삶) 많은 신자가 거창한 곳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결혼과 취업, 사업과 진로 선택이란 중대사를 앞두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받는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과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천기를 알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중대사들은 대부분 평소의 가치관과 자세, 실력과 분별력에 따라 결정되지 갑자기 천기가 누설되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참된 기도를 드리고 싶다면 우선 자신의 기도가 개인적 욕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자기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것을 미리 염려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그간 궁금해했던 많은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미 명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명확하게 알려진 것에 대해 재차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는 없다. 우리 삶의 최우선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나라와 의는 거창한 데 있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과 관계 가운데 있다.

42.

* 루터의 소요리문답

1 계명 : 우리는 무엇보다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계명 :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그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모독하거나 속임수를 쓰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기만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어떤 고난에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계명 : 우리는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지 않고 거룩히 받아들이며, 즐거이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계명 : 우리가 부모를 경멸하거나, 노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들을 경외하고 섬기며 순종하고 사랑하며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듯 사랑해야 합니다.

5 계명 : 우리는 우리 이웃의 몸에 해를 끼치거나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들을 돕고 모든 육의 고난에 협력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 계명 :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정결하고 단정하게 생활하고 그와 같이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 계명 :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돈이나 재산을 훔치거나 훔친 물건을 사거나 팔지 말고, 그에게 재물과 음식으로 도우며 보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 계명 :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거짓으로 속이지 아니하며 배반하지 아니하며 비방하지 아니하며 악평을 만들지 아니하고 그에게 사과하며 그에 대하여 좋은 것을 말하고 모든 것을 최상으로 되도록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 계명 : 우리는 권모술수로써 이웃의 재산이나 집을 탐내지 아니하며 법의 증거를 빙자하여 우리의 것으로 삼지 말고 도리어 그의 재산이 보호되도록 협조하며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10 계명 :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 있는 남녀 하인이나 가축을 강제로 빼앗지 아니하며 저버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이 은혜를 입은 대로 살며 행하도록 그들을 보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2.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 어떠한 사람도 타락 이래로는 금생에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매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들을 어깁니다.

Q. 82. Is any man able perfectly to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A. No mere man since the fall is able in this life perfectly to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but doth daily break them in thought, word and deed.

84. 각 죄는 어떤 보응을 받습니까?

=> 각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금생과 내생에서 받습니다.

Q. 84. What doth every sin deserve?

A. Every sin deserveth God's wrath and curse, both in this life, and that which is to come.

85. 하나님은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피하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그리고 그와 더불어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 수단들을 근면하게 사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Q. 85. What doth God require of us that we may escape his wrath and curse due to us for sin?

A. To escape the wrath and curse of God due to us for sin, God requireth of us faith in Jesus Christ, repentance unto life, with the diligent use of all the outward means whereby Christ communicateth to us the benefits of redemption.

86.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하는 은혜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가 복음에서 우리에게 제공된 대로 구원을 위해서 오직 그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Q. 86. What is faith in Jesus Christ?

A. Faith in Jesus Christ is a saving grace, whereby we receive and rest upon him alone for salvation, as he is offered to us in the gospel.

87.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로, 죄인은 이것에 의하여 자기 죄에 대해 참으로 인식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되면서 자기 죄에 대해 탄식하고 싫어하며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순종이라는 완전한 목적을 갖고 이를 향해 노력합니다.

Q. 87. What is repentance unto life?

A. Repentance unto life is a saving grace, whereby a sinner, out of a true sense of his sin, and apprehension of the mercy of God in Christ, doth, with grief and hatred of his sin, turn from it unto God, with full purpose of, and endeavor after, new obedience.

86.

*대교리문답 제 72문.

의롭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영과 말씀에 의해 죄인의 마음 속에서 형성된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이것에 의해 그는 자기의 죄와 비참을 깨닫고, 잃어버린 상태로부터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자신과 다른 모든 피조물에는 없다는 것을 깨달아 복음의 약속의 진리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기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수납되고 인정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 14장.

믿음의 주요한 역할은 칭의, 성화, 영생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But the principal acts of saving faith are accepting, receiving, and resting upon Christ alone for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and eternal life, by virtue of the covenant of grace.)

87.

삶)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강조하고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참된 인식에 근거하여 죄에 대해 탄식하고 싫어하며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렘 31:18-19, 욥 2:12) 단순히 죄에 대해 탄식하고 싫어하는 것만으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 후회하고 탄식하되 여전히 그 죄에 머무는 것은 일시적, 감상적 회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로부터 과감하게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5화: 은혜의 수단(말씀 & 성례)]

88.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외적 수단은 무엇입니까?

=>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은 그의 규례들인데 특별히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을 위해 택자들에게 효과적입니다.

Q. 88. What are the outward and ordinary means whereby Christ communicateth to us the benefits of redemption?

A. The outward and ordinary means whereby Christ communicateth to us the benefits of redemption, are his ordinances, especially the word, sacraments, and prayer; all which are made effectual to the elect for salvation.

89. 말씀은 어떻게 구원에 효력이 됩니까?

=> 하나님의 영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의 선포를 죄인을 확신시키고 변화시키며 거룩과 평안 가운데 그들을 세워가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게 하십니다.

Q. 89. How is the word made effectual to salvation?

A. The Spirit of God maketh the reading, but especially the preaching, of the word, an effectual means of convincing and converting sinners, and of building them up in holiness and comfort, through faith, unto salvation.

90. 말씀이 구원에 효과적이 되도록 말씀은 어떻게 읽히고 들려져야만 합니까?

=> 말씀이 구원에 효과적이 되도록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함과 기도로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간직해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Q. 90. How is the word to be read and heard, that it may become effectual to salvation?

A. That the word may become effectual to salvation, we must attend thereunto with diligence, preparation and prayer; receive it with faith and love, lay it up in our hearts, and practice it in our lives.

88.

삶)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통해서 은혜를 누립니다. 교회를 떠나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많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접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새겨진 만물이 은혜의 수단들입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과 승리를 통하여 섭리하시어 우리를 기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들도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소요리 문답에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할 때는 이것들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들이 객관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관적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상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좀 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의식을 통해 주어질 때 은혜의 수단이라는 말이 꼭 들어맞습니다.

91. 성례들은 어떻게 구원에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까?

=> 성례들은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데, 성례들 안에 있는 어떤 덕이나 혹은 그 성례들을 집행하는 자 안에 있는 어떤 덕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성례들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Q. 91. How do the sacraments become effectual means of salvation?

A. The sacraments become effectual means of salvation, not from any virtue in them, or in him that doth administer them; but only by the blessing of Christ, and the working of his Spirit in them that by faith receive them.

92. 성례란 무엇입니까?

=> 성례란 그리스도가 세운 거룩한 예식으로서 지각할 수 있는 표지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성례에서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인쳐지며 적용됩니다.

Q. 92. What is a sacrament?

A. A sacrament is an holy ordinance instituted by Christ; wherein, by sensible signs, Christ, and the benefits of the new covenant, are represented, sealed, and applied to believers.

93. 신약의 성례들은 무엇입니까?

=> 신약의 성례들은 세례와 주의 성찬입니다.

Q. 93. Which are the sacraments of the New Testament?

A. The sacraments of the New Testament are baptism and the Lord's supper.

94. 세례란 무엇입니까?

=> 세례는 성례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는 것을, 우리가 은혜언약의 유익들을 취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속한다는 서약을 상징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Q. 94. What is baptism?

A. Baptism is a sacrament, wherein the washing with water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Ghost, doth signify and seal our ingrafting into Christ, and partaking of the benefits of the covenant of grace, and our engagement to be the Lord's.

91.

삶) 농부들이 작물을 거두려면 씨를 심고 물과 퇴비를 주고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농부들이 작물을 자라게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씨를 심고 물과 퇴비를 주면 작물이 자라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씨와 물과 퇴비와 햇빛이 만나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농부의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례와 성찬은 그 자체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것들을 집례하는 자에게서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것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세례와 성만찬을 제정하시며 그것들을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92.

* 지각할 수 있는 표지 : a visible sign of an invisible grace

삶) 세례는 더러움이 물로 깨끗이 씻기듯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기는 것을 나타냅니다. 성찬의 떡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는 떡과 포도주를 두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의 의미를 생생하게 깨닫습니다... 구약의 성례는 더욱 공감각적이었습니다. 할례는 받는 자에게 살이 찢리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짐승을 잡아 죽여야 하는 유월절과 각종 제사는 죽어가는 짐승의 고통과 눈빛을 직접 보아야 하는 부담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짐승의 울음 소리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지각하는 여러 감각을 사용하시어 전달하려는 의미를 확실하게 교육하십니다.

95.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합니까?

=>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베풀어서는 안 되고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때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교회 회원들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Q. 95. To whom is baptism to be administered?

A. Baptism is not to be administered to any that are out of the visible church, till they profess their faith in Christ, and obedience to him; but the infants of such as are members of the visible church are to be baptized.

96. 주의 성찬은 무엇입니까?

=> 주의 성찬은 성례로서 그리스도의 제정하심에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는데, 이것에 의하여 그의 죽음이 나타나 보이고 합당한 수찬자는 신체적이고 육체적인 방식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 그의 몸과 피에 그의 모든 유익과 함께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져 영적인 양육에 이르고 은혜에서 성장합니다.

Q. 96. What is the Lord's supper?

A. The Lord's supper is a sacrament, wherein, by giving and receiving bread and wine according to Christ's appointment, his death is showed forth; and the worthy receivers are, not after a corporal and carnal manner, but by faith, made partakers of his body and blood, with all his benefits, to their spiritual nourishment and growth in grace.

97.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서 무엇이 요구됩니까?

=>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그를 먹는 믿음이, 그리고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자신들에게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여 자신들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 97. What is required to the worthy receiving of the Lord's supper?

A. It is required of them that would worthily partake of the Lord's supper, that they examine themselves of their knowledge to discern the Lord's body, of their faith to feed upon him, of their repentance, love, and new obedience; lest, coming unworthily, they eat and drink judgment to themselves.

95.

삶)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태어난 유아에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아무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유아에게도 할례를 행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를 유아들에게도 내리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람의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의 매우 중요한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약속이 설교를 듣는 자들만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도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행 2:38-39).

96.

삶) 성찬에서 주의 죽음이 나타나 보인다고 할 때 이 죽음은 부활의 승리를 포함한 죽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절대로 죽음 자체로 끝나지 않고 부활과 승천과 주의 우편에 앉으심도 포함합니다...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죽음만을 보는 자는 떡과 포도주를 받아먹을 때 그리스도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며 슬픔과 비탄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찬에서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영광도 보는 자는 기쁨과 희망을 느낍니다. 우리는 성찬식에서 부활과 승천과 재림도 기억하며 기쁨과 축제와 소망의 의미 역시 담아내야 합니다.

97.

삶)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는 자들은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성찬이 요소인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과 흘린 피임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신자들일지라도 성찬식을 앞두고 주의 몸에 맞지 않는 타락한 삶을 살고 있거나 특정한 큰 죄를 지었을 때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찬식은 성찬에 참여하는 그 순간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성찬을 앞두고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도 중요합니다.

[6화: 은혜의 수단(기도)]

98. 기도란 무엇입니까?

=>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아뢰되, 그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에 대해 고백하면서, 그의 자비로우심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Q. 98. What is prayer?

A. Prayer is an offering up of our desires unto God, for things agreeable to his will, in the name of Christ, with confession of our sins, and thankful acknowledgment of his mercies.

99. 하나님은 기도에서 우리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어떤 법칙을 주셨습니까?

=>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는데 유용하지만 기도를 위한 특별한 지도 법칙은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기도 형태로써,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불립니다.

Q. 99. What rule hath God given for our direction in prayer?

A. The whole word of God is of use to direct us in prayer; but the special rule of direction is that form of prayer which Christ taught his disciples, commonly called the Lord's prayer.

100. 주기도문의 서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주기도문의 서문은, 자녀가, 도우실 수 있고 도울 준비가 된 아버지에게 가는 것처럼, 거룩한 경외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Q. 100. What doth the preface of the Lord's prayer teach us?

A. The preface of the Lord's prayer, which is,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teacheth us to draw near to God with all holy reverence and confidence, as children to a father able and ready to help us; and that we should pray with and for others.

* 101-106문 (주기도문) 생략

98 문.

*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 = 마 6:5-9 (외식, 중언부언)

* 대교리문답 181.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 사람의 죄악상과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긴 거리가 중보자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심히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임명받았거나 적합하 자가 하늘에든 땅에든 오직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기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 대교리문답 184 문. 무엇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에 도움이 되는 것을 위해, 교회의 평강과 우리 자신이나 다른 이를 위해 그리고 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법인 어떤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100.

특강) 머리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사실, 즉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 이것이 이 서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107. 주기도문의 끝 부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주기도문의 끝 부분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을 것을,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서 나라, 권세 그리고 영광을 그분께 돌리면서 그분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표로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Q. 107. What doth the conclusion of the Lord's prayer teach us?

A. The conclusion of the Lord's prayer, which is,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teacheth us to take our encouragement in prayer from God only, and in our prayers to praise him, ascribing kingdom, power and glory to him. And in testimony of our desire, and assurance to be heard, we say, Amen.

107.

특강) 주기도문의 실천조차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그분만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이라는 소요리문답 1문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그분만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삶이, 다른 그 어떤 무엇보다도 내가 가져야 할 최고의 가치임을 재확인합니다.

*** 헤브론 교회 세례 서약**

1.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 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믿습니까?

Do you acknowledge that you are a sinner before God and that you deserve nothing but the wrath of God, and that the only way for you to be saved is by God's great mercy?

2.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받으며, 그에게만 의지하십니까?

Do you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and the only Savior of sinners, and as the gospel says, that Jesus is the only One who can save you, and do you believe and trust him alone?

3.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허락하십니까?

Do you trust the grace of the Holy Ghost to give you a desire to follow Jesus Christ, and will you forsake sin and live according to Christ's teachings and examples?

4.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그 청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허락하십니까?

Do you promise to submit yourself to the discipline of the church, and to seek the peace and purity of the church?

* 헤브론교회 유아 세례 서약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

1.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는 피와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Do you acknowledge that the child needs the grace of washing by the blood of Christ and renewing by the Holy Spirit?

2. 여러분은 이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을 요구하며,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하는 것과 같이 이 자녀의 구원을 위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니까?

Do you wish the covenant promise for the child and acknowledge that this child will be saved by trusting in the Lord Jesus Christ, just as you seek earnestly your own salvation?

3. 여러분은 지금 이 자녀를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의지하면서 자녀 앞에 경건한 모범을 보이며, 자녀와 함께, 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신앙의 원리를 자녀에게 가르치며, 하나님의 정하신 모든 방법으로 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기로 약속하십니까?

Do you completely dedicate this child to God, and trust God's grace in humility, and promise to be a good example to this child, to pray for and with this child, to instruct this child in the holy Christian religion, and to be active in the instructions which God has ordained to train up this child in the nurture and admonition of the Lord?

4. 회중에게

여러분은 한 회중으로서 이 부모들이 이 자녀를 그리스도의 훈계로 양육하는 일을 돕는 책임을 감당하시겠습니까?